

윤여정, 美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한국 배우 개인으로는 최초
25일 아카데미 참석 여부 관심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배우조합상(SAG) 여우조연상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미국 오스카 트로피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배우조합(SAG)은 4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7회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 시상식에서 모든 배우의 연기가 조화로운 작품에 주어지는 앙상블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국 배우 개인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은 세계 최대 규모 배우 노조인 미국 배우조합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스카 전조전으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윤여정이 아카데미에서도 여우조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여정은 한인 2세인 리 아이작 정(정미사) 감독의 자전적 영화 '미나리'에서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손주들을 돌보며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다. 현지 매체들은 윤여정을 유력한 오스카 수상 후보로 점치고 있다.

윤여정이 미국배우조합상까지 따내며 25일



배우 윤여정이 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27회 미국배우조합(SAG)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고 화상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예정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여타의 영화 시상식과 달리 오스카 주최 측은 수상자의 영상 수상연설을 제한하고 직접 참석을 권고하고 있다.

시상식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유니언역과 LA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이일 생중계된다. LA 카운티 지침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가 의무다. 귀국 시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에 한 달 가까이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윤여정의 수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상식 참석을 위해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윤여정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으로 출국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뉴시스

방탄소년단 '봄날'도 넘겼다

뮤직비디오 4억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봄날' 뮤직비디오가 4억뷰를 돌파했다.

5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 2월 발매한 '윙스(WINGS)' 외전: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의 타이틀곡 '봄날'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오전 0시37분께 4억 건을 넘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통산 11번째 4억뷰 뮤직비디오다.

'봄날'은 RM과 슈가의 경험담을 녹여 낸

가사와 서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이다. 떨어진 친구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눈이 내리는 설원을 배경으로 한 편의 영화 같은 영상미에 일곱 멤버의 소년미 넘치는 표정 연기가 더해져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봄날'을 포함해 총 31편의 역대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12억뷰의 'DNA', 11억뷰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이다. /뉴시스

고민시, 생계형 간호사로 변신

KBS '오월의 청춘' 5월 방송

배우 고민시가 KBS 새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에서 1980년대 생계형 간호사로 변신했다.

오는 5월 3일 첫 방송되는 '오월의 청춘'은 1980년 5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희태(이도현 분)와 명희(고민시 분)의 아련한 봄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레트로 휴먼 멜로드라마다.

고민시는 3년 차 간호사 '김명희'를 맡았다. '백의의 전사'보다는 '백의의 전사'에 가까운 씩씩한 가진 캐릭터로, 녹리지 않은 삶에도 꿈을 잃지 않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뉴시스



KBS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 첫 스틸컷.

5일 공개된 고민시의 첫 스틸사진에서 고민시는 레트로 스타일링을 완벽 소화했다. 윙어 묶은 간호사 캡과 녹색의 유니폼이 80년대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뉴시스



라이프타임의 금토드라마 '드라마월드' 스틸컷.

드라마월드 방송 첫 주 카메오 라인업 '눈길'

한지민·이지아·최시원·샘 해밍턴 등 출연... "특급 찾는 재미 계속"

라이프타임의 금토드라마 '드라마월드'가 방송 첫 주부터 화려한 카메오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월드'의 지난 1화에서는 K-드라마 속 모든 공식과 법칙이 총망라한 책이 등장하는 등 K-드라마 팬이라면 공감 가능한 내용과 배우들의 특별출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남자 주인공은 자신감, 외모, 약간의 오만함을 갖추며 여자 주인공을 우선시하는 신사여야 한다', '남자 주인공의 사위 신은 필수며, 웨딩과 장례물이 많을수록 진정한 사람이 보장된다', '목숨을 구하고 사랑을 이룬다' 등 K-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외국인 시선에서 잘 살렸다는 평가다.

그런가 하면 장례식장 신, 삼겹살집에서 소주 마시며 취중진담 하기 등 한국 문화가 소개돼 재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한지민, 이지아, 최시원, 샘 해밍턴 등 초호화 카메오가 등장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도환, 양동근, 김병철, 박진주 등 개성과 배우들도 방송 곳곳에 등장했다.

드라마월드 측은 "회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카메오가 등장할 예정이어서 특급 카메오는 찾는 재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월드'는 우연히 K-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간 미국 대학생 '클레어'(리브 휴슨)가 남녀 주인공의 '조력자'가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드라마를 구하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다. 드라마 안에서 조력자는 남녀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빠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뉴시스

'고질라 vs. 콩', 북미 최고 오프닝

영화 '고질라 vs. 콩'이 55만명 관객을 넘어 서며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팬데믹 기간 개봉한 영화 중 북미와 월드와이드 오프닝 최고 성적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5일 배급사 워너브러더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봉한 북미에서는 5일간 4850만 달러를 벌어들여 팬데믹 기간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오프닝 수익만으로 팬데믹 기간에 개봉한 영화인 '원더 우먼 1984'(4610만 달러)의 북미 최종 흥행을 넘어선 것이고, '테넷'(5790만 달러) 또한 육박해 침체된 세계 영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이는 팬데믹 이전 개봉한 전작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4750만 달러)의 오프닝 역시 넘어선 것이라 시리즈 피날레로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총 수익은 2억8540만 달러(약 3222억 원)로 집계됐다. '테넷'이 24일에 2억 달러 달성한 것을 '고질라 vs. 콩'은 12일로 단축했다. 최종 글로벌 흥행 수익은 4억70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배급사 측은 전망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